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율 75.3%...8만1224명 부스터샷

1차 접종 80.1%...16~17세 38만1759명 접종  
내일부터 12~15세 접종 시작...예약률 27.0%

지난 10월 30일 하루 동안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자가 3만6103명, 접종 완료자는 35만7137명 늘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0.1%, 접종 완료율은 75.3%다.

국내에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는 인원은 8만1224명이다.

10월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3만6103명이 1차 접종에 참여해 누적 4113만 5997명이 됐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80.1%가 1차 접종을 받은 셈이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92.2%다.

신규 1차 접종자가 맞은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바이오텍 3만 188명, 모더나 5357명, 안센 501명,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57명이다.

백신별 누적 1차 접종자는 화이자 2198만9201명, 아스트라제네카 1110만6999명, 모더나 655만5034명이다. 안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끝나므로 1·2차 접종 수치를 모두 반영하는데 그 누적 인원은 148만

4763명이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35만7137명 증가해 누적 3866만478명이다. 전 국민의 75.3%,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87.6%이 접종을 마친 것이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신규 35만 7137명을 백신별로 보면 모더나 20만6602명, 화이자 14만7088명, 아스트라제네카 2946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 중 1417명은 1차 접종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이들이다.

백신별 누적 2차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1098만4618명(교차접종 175만3991명 포함), 화이자 2074만 383명, 모더나 545만714명이다. 나머지는 안센 접종자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574만6790명 중 1954만1864명이 접종을 마쳐 75.9%, 남성은 2560만2326명 중 1911만8614명이 완료해 74.7%를 각각 기록했다. 1차 접종률은 여성 80.3%, 남성 79.9%이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60대가 93.5%로 가장 높다. 뒤이어 50대 92.8%, 70대 92.3%, 80세 이상 81.7%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청장년층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86.1%를 기록했다.

18~29세 82.8%, 30대 80.9%, 17세 이하 0.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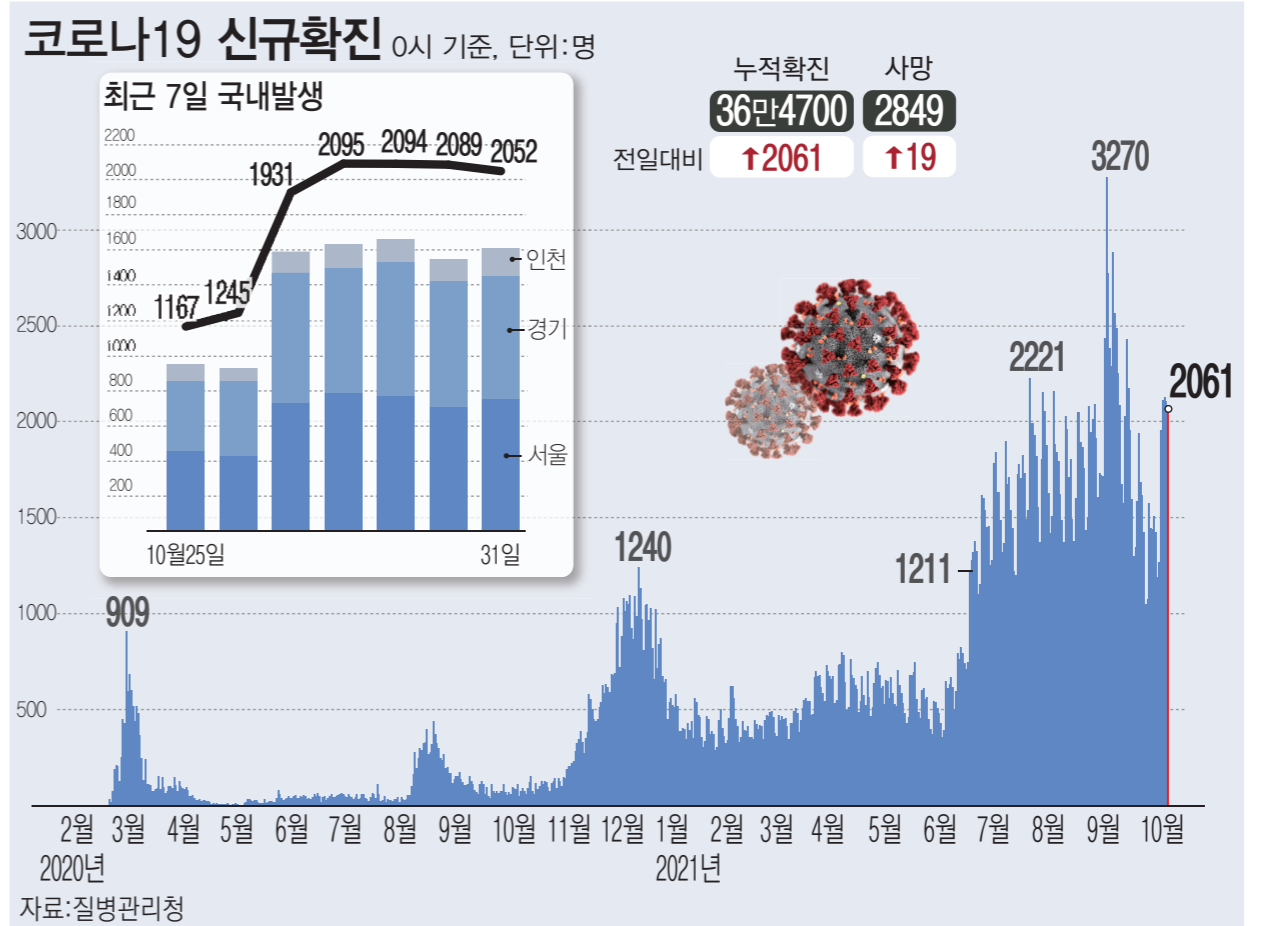
1일부터는 12~15세(2006~2009년생)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게 된다. 이날 0시 기준 12~15세 예약 대상자 약 187만명 중 50만3333명이 접종 사전예약을 마쳤다. 예약률은 27.0%이다.

추가접종을 예약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총 101만9036명이다.

이 중 전날 하루 동안 3280명이 추가접종을 받아 누적 8만1224명이 됐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3만8289명,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4만2935명이다.

11월부터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안센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안센 접종자 중에서는 60만7528명이 추가접종 예약을 마쳤다. 이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 18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16~17세는 총 38만1759명이



접종을 받았다. 임신부는 3375명이 사전예약을 마쳤고 이 중 1054명이 접종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총 1742만6000회분이다. 화이자 834만회분, 모더나 775

만6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14만 1000회분, 안센 18만8000회분이다. 전날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병단이나 민간SNS 당일 신속예약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차 접종 기준 1만9568명, 2차 접

종 기준 1만8519명이다. 이로써 지난 5월27일부터 누적 잔여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560만 6418명, 접종 완료 204만9753명이 됐다.

최이슬기자

## 해수부, 전남 가거도 해역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조업일지 부실기재·선박서류 미소지 혐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단 2척·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벌을 받는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9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해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상사 욕설·폭행’ 문자 뒤 극단선택...괴롭힘 조사 의뢰

1년 근무 사원, 회식 뒤 회사 관계자에 메시지·통화

광주 모 에너지 관련 회사에 다니던 20대 남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괴롭힘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10월 29일 광주 광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다니는 A(25)씨가 지난 10월 27일 오전 8시에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주변 아파트로 향했다.

A씨는 10월 27일 오전 0시 16분 '특정 상사의 잦은 욕설·폭언·폭행으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된다. 해당 상사는 차기 팀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회사 노동위원회에 보냈다.

A씨는 이후 노동위원회와 통화를 했다. 노동위원회는 '자정이 넘은 만큼, 내일 이야기 하자'며 안전한 귀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동위원회 통화를 마치고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전화로 또다시 힘들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안전 관리직으로 1년 1개월 동안 일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사측

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직원의 고충을 들었어야 할 노동 위원장은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힘들음을 토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 등에서 조사관이 올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